

‘사랑가득! 희망에너지’ 로 아름다운 세상 함께 만들어요

김성용 | 현대오일뱅크 홍보팀 부장



▲ '소년소녀 가장돕기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펼치고 있는 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

매서운 바람으로 전국이 뽕뽕 얼어붙었던 지난 겨울,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위치한 장애인 시설 '소망의 집' 앞에서는 차가운 동장군의 기세도 봄날의 눈처럼 녹아 내렸다. 연일 추운 날씨를 기록하던 지난해 연말, 이곳 소망의 집은 현대오일뱅크 비서실 봉사팀인 '가득채'가 방문해 따뜻한 온기와 웃음소리로 내내 복작거렸다. 나물을 다듬고 밑반찬을 척척 준비해 나가는 서영태 사장과 비서실 봉사팀직원들은 이곳 소망의 집에 기거하고 있는 중증 정신지체 아이들과 기타반주에 맞춰 노래와 율동으로 함께 어울렸다.



▲ '지역아동센터 사랑의 리모델링' 봉사활동

또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십명의 아이들을 위해 '가득채' 봉사팀은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 직접 떠먹여 주고 설거지와 방청소등 뒷마무리 까지 깔끔하게 마쳤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직원 모두는 아마도 이날 가장 뜻 깊은 봉사활동 겸 송년회를 이곳 소망의 집에서 치렀다.

현대오일뱅크 임직원의 이런 봉사활동은 비단 봉사팀 '가득채' 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나눔터', '코스모스회', '한마음회' 등 현대오일뱅크는 각사업장 마다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봉사팀들이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업지원팀 부서원으로 구성된 '나눔미' 회원들 역시 회식값을 아껴 서울 신림동 소재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꿈나무 공부방'을 2년동안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지난 연말에는 이곳 '꿈나무 공부방'의 초청으로 아이들이 정성껏 준비한 학예발표회를 참관하며 아이들과 훈훈한 마음을 나누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대구지역 사업장의 봉사동아리인 '참사랑' 모임은 조손 가정이나 결손, 보호가정에 김장김치를 담궈 전달하고, 서울지역 한 사업장 봉사모임에서는 노인 요양원을 방문해 노인 병수발을 하기도 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렇게 소규모 분임단위의 봉사팀이 활발하다. 이러한 임직원들의 봉사활동 참여는 지난해부터 전사적으로 펼치고 있는 '1사우 1봉사팀' 캠페인의 영향이다. '1사우 1봉사팀'이란 직장내에서 마음에 맞는 동료나 선후배 등으로 자유롭게 봉사팀을 만들어 봉사활동도 재미있고 신나게 하자는 것으로 임직원들은 자율적으로 1개 이상의 봉사팀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전체 임직원의 60%가 넘는 1,041명의 임직원이 74개의 봉사팀을 구성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고 서울과 대산을 비롯하여 전국 영업부서와 저유소, 출하소 등이 소재한 모든 지역에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 '사랑의 리모델링' 봉사활동



▶ 불우이웃돕기위한 인근지역쌀 구매사업

소외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기부 지원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

현대오일뱅크는 임직원들의 활발한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회사 차원의 이웃사랑 실천 프로그램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매년 연말이면 '사랑의 난방유'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이 행사는 전국 2000여개의 자사 계열 주유소에서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등 불우이웃에게 난방유를 무상 지원하는 행사이다.

특히 '사랑의 난방유' 나눔 행사는 현대오일뱅크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행사로 주유소를 방문하는 고객이면 누구나 '사랑의 카드'로 주위 불우한 이웃을 고객이 직접 추천하면 회사가 난방유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사랑의 난방유 나눔 행사는 지금까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등 전국 불우이웃 1,000 여명 이상에게 전달되어 추운 겨울,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데 소중한 역할을 했다.

또한 현대오일뱅크는 매년 정기적인 기부후원 캠페인 활동 이외에도 비정기적인 기부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05년 말 1억5천 만원의 예산으로 진행한 전국 3개 지역아동센터의 리모델링 사업이나 서울시장애인체육대회 후원사업, 이란 지진참사 성금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는데 앞장선다

또한 현대오일뱅크는 지구 온난화, 이상 기온등 환경오염의 이슈가 날로 그 무게를 더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자라나는 청소년, 어린이, 네티즌 등 젊은층을 대상으로 자연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제1회 현대오일뱅크 자연사랑 디카족 사진공모전'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환경의 소중함을 젊은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참신한 아이디어 하나로 빛 바랜 세상을 푸르게 바꿀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일상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사랑 아이디어 공모전'을 젊은 네티즌 상대로 펼치고 있고,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연사랑, 환경사랑' 온라인 백일장도 펼치고 있다.

다양한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 전개

현대오일뱅크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역 발전에 적극 공헌하며 사회적 가치를 증진한다는 방침 아래, 다양한 지역협력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현대오일뱅크 장학재단을 발족하며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고 현대오일뱅크 장학재단은 지역 대표기관의 대표가 임원과 실무위원으로 선임되어 재단 운영이 독립적이고 투명하고 운영되고 있는데, 총 10억원의 재원을 목표로 매년 1억 5천만원을 출연, 1억원은 적립하고 5천만원은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서산시, 태안군, 당진군의 중·고등학생 75명, 대학생 10명 등 총 85명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향후 장학사업의 규모와 수혜대상을 점진적으로 키워나감으로써 지역사회 교육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오일뱅크는 공장이 소재한 충남 대산공장 인근 농촌지역을 돕기 위해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구매해 불우이웃돕기에 전량 기부하는 지역협력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공장 인근지역민이 생산한 쌀 40kg짜리 1만여 포대(약 5억원 상당)를 사들여 이를 다시 소년소녀가장, 보육원, 양로원 등 사회에서 소외된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했다.

그외에도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04년 6월부터 매년, 지역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풍어기원 치어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럭과 광어 등 어종 10만 마리를 충남 서산 삼길포 인근수역(비경도 전면)에서 방류하는 이 행사는 지역사회의 소득증대와 풍족한 연안 어족 조성, 더 나아가 건강한 바다를 기원하는 오일뱅크 환경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오일뱅크는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서 적극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회 공헌을 위하여 전사적으로 펼치고 있는 '1사우 1봉사팀' 운영을 활성화하고 회사 차원에서 운영 중인 이웃사랑 실천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상생 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